카타르, 에틸렌 202만톤 확장 계획

Qapco, 52.5만톤 건설후 72만톤으로 증설 ... Q-Chem II는 130만톤

Qatar Petrochemical(Qapco)은 Mesaieed에 에틸렌(Ethylene) 생산능력 52만5000톤의 Ethane 베이스 크래커를 건설한 후 72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Stone & Webster가 중국의 CTCI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2억달러에 턴키로 수주했는데, Technip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.

Qapco는 Qatar Petroleum(QPC)과 Atofina의 합작기업이며, Atofina와 QPC는 또다른 합작기업 Qatofin을 설립해 Mesaieed에 LDPE(Low-Density Polyethylene) 4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. 2006년 하반기 가동 예정으로 Univation Technology의 Unipol 프로세스를 채용한다.

QPC와 Chevron Phillips Chemical, Qatofin이 합작한 Qatar Chemical(Q-Chem II)도 에탄 베이스 에틸렌 130만톤 크래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
프로젝트에는 Linde-삼성엔지니어링, S&W-JGC, ABB Lummus Global-Snamprogetti, Technip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.

한편, 러시아의 국영 가스 공급기업 Novatek은 10억유로(12억4000만달러)를 투자해 Samara에 에틸렌 40만톤, 프로필렌(Propylene) 20만톤, PE 40만톤, 벤젠(Benzene) 1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.

Gas Condensate를 원료로 사용하며 C4 및 Higher Fraction도 생산하며 2008년 가동 예정이다. Linde가 수주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2>